

# SK이노, 가격폭락 마늘 수매... 소비촉진 동참

### 5000만원어치 구매 어르신들에 전달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마늘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한 소비촉진에 동참한다.

SK이노베이션은 마늘 재배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늘을 대량으로 수매,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에 동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SK이노베이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산시는 서산시청에 모여 마늘 소비 촉진 및 이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현지 생산한 마늘 수매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호 서산시장의 SK이노베이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산시는 대표적인 마늘 주산지로서 6쪽 마늘로 유명한 곳이다.

SK이노베이션은 5000만원 규모의 마늘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 전경.

/SK이노베이션

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구매해 이를 독거노인 연계기관에 기탁해 각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매하는 서산 마늘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해 재배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은 "마늘

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에 대해 정부, 기관 등 범국민적 차원의 소비촉진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 기업에서도 참여하게 되었다"며 "마늘 소비가 늘어나 농민들 시름이 덜어질 기대하고, 마늘 소비 열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동원산업 최신행 선망선 '주빌리'호 첫 출항

동원산업의 최신행 선망선 '주빌리(JUBILEE)'호가 약 20개월의 건조기간 끝에 마침내 원양으로 첫 출항했다.

동원산업은 부산 사하구 대대포항에서 신형 선망선인 '주빌리'호의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동원그룹 김남정 부회장, 대선조선 이수근 사장, 윤명길 원양산업협회장, 한국선급 이정기 회장 등을 포

함해 200여명의 관계자와 선원가족들이 참석했다.

'주빌리'는 50주년 등의 기념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올해 동원산업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명명됐다. 주빌리호는 2200t급 헬기탑재식 선망선으로, 최신 급빙 설비를 탑재하여 고부가가치의 참치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

금일 출항한 주빌리호는 김민호 선장을



주빌리호.

/동원산업

포함한 30여명의 선원들이 승선해 약 1년 동안 남태평양 해역에서 참치조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7854@

## 증권사 리포트와 '실패'



기지 수첩

손 업 지 (파이낸스&마켓부)

"일본 무역 보복은 증시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겁니다. 도리어 한국 부품 기업에 호재로 작용,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일본이 무역 보복을 시작한 뒤 '증시 전망'을 묻는 기자에게 한 증권사리서치센터장이 한 말이다. 대부분의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비슷한 말을 했고,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를 쏟아냈다.

이 같은 현상에 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개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자조적인 말을 남겼다. "일본 무역 분쟁도 괜찮고, 미국 금리인하는 대박이고... 리서치 목적이 뭐지 모르겠다. 투자자들이 힘든 건 안중에도 없다."

기자 역시 취재를 하면서 리서치 연구원으로부터 (기업이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멘트'를 받는 게 가장 어렵다고 느낀다. 한 번은 미국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한 데 따른 증시 전망 기사를 써야 했다. 오전부터 바쁘게 증권사 리서치 연구원에게 전화를 돌렸다. 부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시각을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였다.

결론적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로부터 부정적인 전망을 받아내는 것은 실패했다. 모두가 다 '금리 동결이 유동성을 증가시켜 신흥국과 같은 한국증시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 증시는 그때보다 더 내렸다.

리포트의 신뢰도는 하류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유는 분명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서치 보고서(리포트)가 영입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고객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역학 관계에 있다.

신뢰도 제고의 대안으로 리포트의 '유료화'가 나온다. 외국계 보고서가 높은 신뢰도를 가진 비결이 유료화에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그날 한국 반도체 업종 주가는 우수수 떨어진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문제다. 유료화가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고객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선 부른 유료화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다. 기자는 닭(실패)이 먼저인 것 같다. /sonumji301@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7월 17일 (음 6월 15일) http://www.saju4000.com

<p><b>쥐</b> 36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48년생 말은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나 보답은 미미. 60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72년생 말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 84년생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난다.</p>	<p><b>말</b> 42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토끼띠의 도움으로 거래가 성사. 54년생 남을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 된다. 66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좌불안석. 78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90년생 심신이 고단한 하루.</p>
<p><b>소</b> 37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온다. 49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나 불청객. 61년생 시대가 변해도 천년을 가는 사랑이 있다. 73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오늘은 거칠 것이 없다. 85년생 구설로 불편해도 인내하자.</p>	<p><b>양</b> 43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55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67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하라. 79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91년생 초지일관하여 책임을 완수.</p>
<p><b>호랑이</b> 38년생 다툼이 생겨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 50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하기 나름이니 신중하게. 62년생 인맥으로 귀한 정보를 얻게 된다. 74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86년생 힘든 일은 뒷사람의 도움을.</p>	<p><b>원숭이</b> 44년생 몸은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 56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오니 주의. 68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80년생 신세 져든 사람이 빛을 받으려 온다. 92년생 출근에 지각하지 않도록.</p>
<p><b>토끼</b> 39년생 조금쯤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행동. 51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치 않으니 더 노력. 6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75년생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 87년생 집중력이 떨어진다.</p>	<p><b>닭</b> 45년생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는 속 빈 강정. 57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상비약을 챙겨라. 6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과 행동을 조심. 81년생 양보와 타협을 잘 해야. 93년생 좋은 일 하고도 목욕는다.</p>
<p><b>뱀</b> 40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 52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벅찬 하루. 6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본 마음으로. 76년생 원칙을 따르고 순리대로 행동하라. 88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손해를 본다.</p>	<p><b>개</b> 46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58년생 친분이 두터우수록 예의와 경위를 지켜라. 70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82년생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94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실수를 한다.</p>
<p><b>돼지</b> 41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53년생 하늘이 높고 푸르니 마음도 상쾌하고 기쁨. 65년생 배우자가 고생을 알아주니 행복. 77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89년생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시작.</p>	<p><b>돼지</b> 47년생 책임진 일을 쉽게 처리하나 성과는 늦게 나타난다. 59년생 손해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좋다. 71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받는다. 83년생 하루가 지루하고 권태롭다. 95년생 사소한 인연도 소중히.</p>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9	5	2		
4			6					3
			5					6
	6		1	8				5
7	8			6	9	3	1	
	1	8						
5	9	7	4	1				
	2		8					5

			4	2		9	6	
8	2	6					5	9
	5		1		6			8
4		1	9		7	2		6
	8		5		4			3
9	6	5					7	1
			8	6			2	3

**스도쿠 정답**

1	6	5	9	4	8	7	2	3
8	2	9	1	7	3	6	5	4
3	4	7	2	5	6	8	1	9
7	1	8	6	9	2	5	8	4
2	5	4	7	8	1	3	9	6
6	9	8	4	3	5	2	7	1
4	3	1	8	2	9	6	5	7
9	7	2	5	6	4	1	3	8
5	8	6	1	7	3	9	4	2

문제 제공= **보스**



## 김상회의四季

### 감당하기 힘든 인품 따라

수명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기정사실이 된지 오래다. 다른 선진국들의 고령화 사회와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는 노령가족을 둔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직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듯하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오복의 하나로서 복된 일이지 만 그저 생명기능 연장만 하는 차원 또는 주변의 가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끼치면서 오래 사는 일은 글썽 누구라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어떤 경우는 노인 당사자의 마음가짐이나 인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온 가족을 들었다 놔다 하는 경우도 적잖이 보게 되는데 필자의 오랜 신도인 L여인의 경우가 그러하다. 누가 봐도 엄청난 효자인 자식들인데도 시어머니의 기대는 만족할 줄을 모른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소홀하며 평상시에도 요구가 많은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팔십대에 들어서면서 슬스 기억력 감퇴와 치매증상이 약간씩 나타났다.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일상이 되어갔고 자신을 혼자 놔둔다는 생각에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히스테리 차원까지 가게 된 것이다. 치매현상이 인품 따라 나타나는 것은 아닐 터인데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온 노인일수록 치매 증세도 가족들을 몹시 힘들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한다. L여인의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도 거만한 성품이었다. 잘 난 남편과 고분고분한 자식들을 두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가족 외에는 교류 관계도 적다가 점점 자식들에게 짐과 원망만 늘어 난 것이다. 불효한 과보는 자식들이 받는다 해도 씁쓸하게도 L여인은 심해지는 이기적 시어머니를 보자면 치매도 인품 따라 발현 되는 것인가 생각해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47호